

2025 대한지리학회 이슈 중심 세미나

22개정과 현장 지리교육

이 슬라이드는 국토지리정보원 고산자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.

고양국제고 이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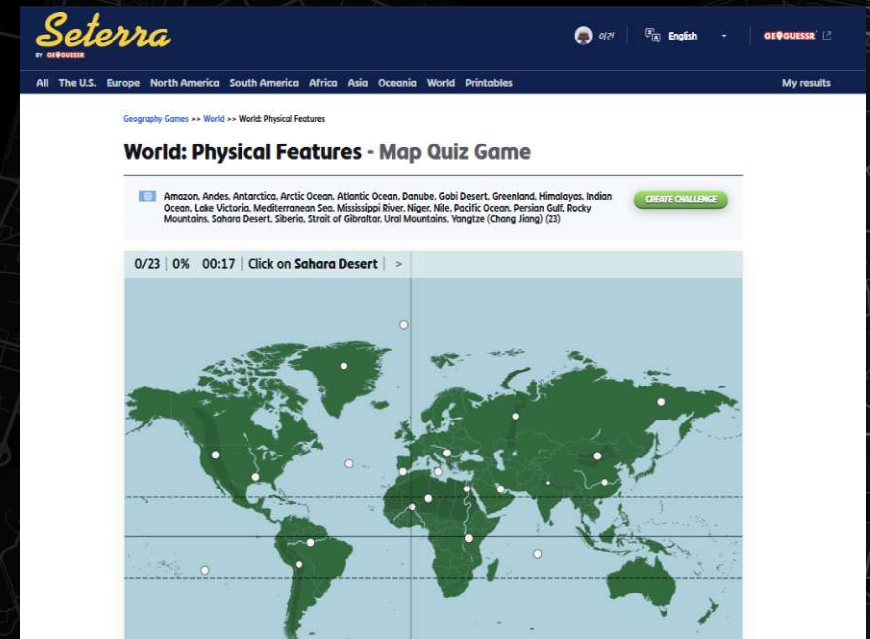


22개정 시행('25~)과 중학교

- **지역지리 중심으로 변화**
 - 위치요소의 표준화는 가능한가
 - 사례1) 한자능력검정시험
 - 권위있는 기관에 의한 난이도 표준화
 - 전문가를 위한 최고 등급
 - 사례2) 태권도
 - 색깔별 띠 구분을 통한 낮은 단계의 세부적 구분
 - 지리올림피아드=소년체전
- **교육지명에 대한 위계 구분의 필요성**
 - 세분화된 목표를 통한 게임적 요소의 교육적 가치
 - 초등지리교육 및 평생교육 측면

왜 우리는 Seterra가 없는가

- 현장은 여전히 백지에 채점 반복 중
 - Seterra : 위치 교육 플랫폼
 - 즉시 채점
 - 교사가 수정 가능
 - 유럽 중심 투영법
 - 한국어 미지원
- 국토지리정보원 지도 제공
 - 이미지 파일
 - 표준화  플랫폼



22개정 시행('25~)와 고등학교

- 새로운 과목 등장
 - 세계시민과 지리, 한국지리탐구, 도시의 미래 탐구, 여행지리, 기후변화와 지속 가능한 세계
- 학교 현장에서 선택 과목의 작동방식
 - 시장 선점과 경로의존성
 - 한번 인기를 끌면 그 뒤에는 확증편향
 - 사례) 고전과 윤리 vs 여행지리
 - ‘청소년’이고, 선배의 말이 중요하게 작동함

고등학교는 탐구 활동

- 탐구활동을 지원하려면 원료가 필요함.
 - 전문가의 학문적 저변 확대 : 대중강연, 단행본, 논문 등 토양 형성
 - 데이터셋 구성: 교육 현장은 ‘대한민국 정부’의 공식적 입장이어야 함
 - Natural Earth : 자연/인문, 축척별 구분
 - 국토지리정보원 : 데이터의 품질
- 교사역량 제고
 - 평가원, 대학(연구실) 등의 자료개발
 - 현장과 함께하는 교학공 자료 개발
 - 이종원 교수님 한국지리탐구 블로그, 전보애 교수님 WebGIS 등
 - 교사 연수 지원
 - 국토연구원 교사연수 우수사례. KDI 경제교사연수, 사법연수원 법교사연수 등 참고 필요
 - 국토지리정보원, 국립공원공단, LH, LX, 항우연 위성센터, 국립외교원 등은 혹시...

위기, 위험한 기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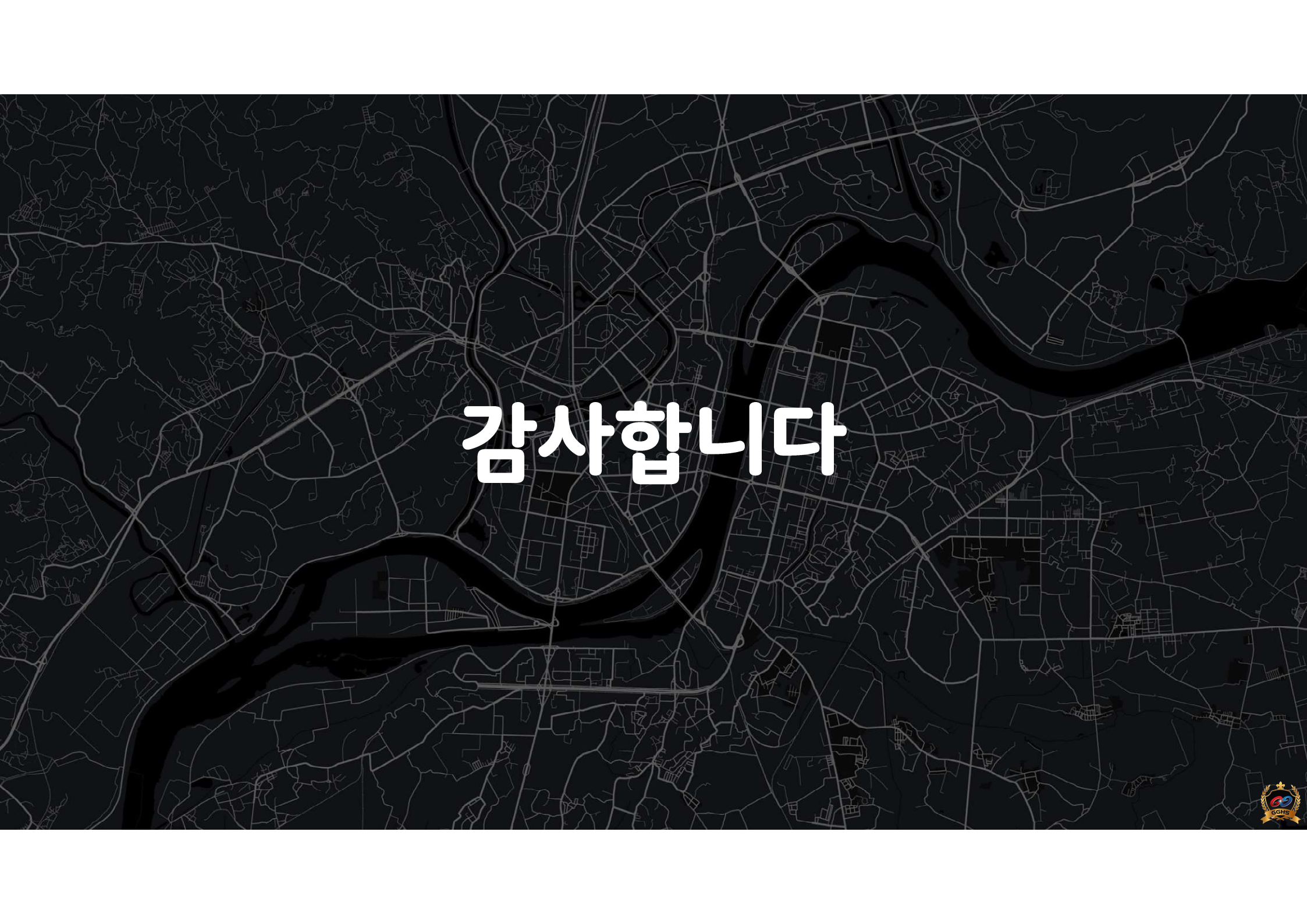
- 현장에서 계기교육이 가능한 이슈
 - 인구(균형발전), 기후(인류세), 영토(독도) ...
 - 지리교육과 필연적으로 관련
- 기후위기
 - 자연지리 교육: 지형학과 기후학을 넘어 인류세 논의 도입 필요
 - 생태지리는 중요성에 비해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기 어려움
- 디지털 역량 강화 추세와 GIS
 - 수학, 정보 수업에서 오히려 꽤 많이 활용함
 - 정작 지리교육에서 강점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

인접학문은 지리교육의 생존전략

- 중등학교는 지리학자를 양성하는 것이 아님
 - 학생들은 ‘지리학’에 관심있는 경우는 드물
 - 도시, 건축, 산림, 관광, 조경, 부동산, 외교, 미디어, 행정, 경영 등의 진로에 ‘도움’이 되는 기초적 지리를 가르침
-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그 바탕에 지리가 있다고 강조
 - 학교 현장에서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함

현실적인 투쟁의 영역

- 입학처에 관심이 있으신가요?
 - 지리학과조차 지리 이수를 권장하지 않는 실태
 - 15개정+학생부종합: 현장에선 매우 중요한 문제임
 - 소속 대학의 '입학'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
 - 확장도 물론 바라지만, 방어부터 단단했으면...
- 통합사회 등장
 - 지리의 몫: 지도는 고유영역, 그래프는 특기
 - 관련 분야 전문가 분들의 독한 각오 필요



감사합니다